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연구

이 현 자*

〈目次〉

- I. 서론
 - 1. 연구 목적
 - 2. 연구사 검토
 - II. 六歌系 연시조의 분류 및 특징
 - 1. 六歌系 연시조의 분류
 - 2. 六歌系 연시조의 작품 특성
 - III.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 1. 六歌系 연시조의 사회·사상적 변이양상
 - 2. 六歌系 연시조의 작품 특징별 변이양상
 -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목적

시조문학은 한 시대의 사회상과 사상을 담는 그릇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조문학의 장르가 일정기간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한

* 경희대 박사

다고 한다면 그 시조문학의 장르는 분명히 그 생성단계부터 전이단계까지 그 시대의 사회상과 사상을 담게 되고 그 사회상과 사상의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시조 또한 우리의 시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문학 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의 담론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상과 사상이 변화함에 따라 시조작품의 성격이나 표현양식,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六歌系 연시조는 현실의 암담함으로 인해 현실자체를 도외시하는 초기성향에서 江湖 자연 자체를 학문의 장으로 보고 발전시키려는 성향이 뚜렷함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六歌系 연시조의 태동에서 쇠퇴기인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변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연시조의 문학성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연시조의 외적 조건(특히 사회적·사상적 배경, 발생연원)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이성에 대하여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사상적 변화가 六歌系 연시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육가계 연시조의 변모양상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六歌系 연시조의 일반적 변이양상에 대한 시대별 구분을 15, 16, 17, 18세기로 나누어 각 시대의 사회적,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고 각 시대의 사회상과 사상의 변화가 六歌系 연시조의 유형, 내용, 작가 층 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며 六歌系 연시조의 내용이 이러한 사회상과 사상의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에 대한 주요 작품에서는 이황의 「陶山十二曲」, 권호문의 「한거십팔곡」, 권구의 「병산육곡」 등 대표적인 여

넓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사 검토

그 동안 시조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고 연시조도 시조 연구가 시작된 이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 연시조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보면, 朴奎洪의 「朝鮮전기 聯詩調 연구」¹⁾에서 壬亂 이전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연시조의 개념과 생성 등의 문제와 함께 작품 및 작가의 시가관을 검토하였다. 趙聖來의 「聯詩調의 構造에 관한 연구」²⁾에서는 聯詩調의 聯結構에 聯關된 수의 규범성과 수반된 의미를 조사하였고 또 의미전개의 구조도 검토하였다.

任周卓의 「聯詩調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³⁾에서는 연시조의 발생과 전승 과정 및 작품의 내적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연시조 장르가 차지하는 시가사적 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金相珍의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⁴⁾에서는 성리학적 사상에 기초한 연시조가 〈사시가계〉, 〈오륜가계〉, 〈六歌系〉의 세가지 중심유형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각기 표방하는 시간질서, 인간질서, 공간질서가 성리학과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연시조가 어떤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면, 여기현은 강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陶山十二曲〉 계통, 〈高山九曲歌〉 계통, 〈漁父 四時歌〉 계통으로 나눔과 동시에 〈四時歌〉 계통을 첨가할 것을 주장하였다.⁵⁾

1) 朴奎洪, 「조선전기 聯詩調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 趙聖來, 「聯詩調의 構造에 관한 研究」,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3)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4) 김상진,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5) 여기현, 「江湖認識의 한 樣相」, 『泮橋語文研究』, 泮橋語文學會, 1988, p.140.

최재남은 작품의 성격에 따라 〈六歌〉, 〈五倫歌〉, 〈四時歌〉로 나누었다.⁶⁾ 임주탁은 앞 분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성립과 전승과정에 따라 〈漁父歌〉 계열, 〈陶山六曲〉 계열, 〈五倫歌〉 계열로 나누었다.⁷⁾

이상의 연구를 보면, 연시조의 개념에 관한 연구나 연시조의 생성에 관한 연구 또는 연시조의 특성이나 연시조의 장르가 시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연시조의 사상적 배경이나 연시조의 유형 분류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의 연구들 대부분이 형태분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예를 들면, 임주탁의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연시조를 〈어부가〉 계열, 〈오륜가〉 계열, 〈도산육곡가〉 계열 등으로 구분한 연구와 또 김상진의 「조선 중기 연시조 연구」에서 〈사시가계〉, 〈오륜가계〉, 〈六歌系〉 각 유형의 개념, 성리학적 사상 배경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연구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개념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의 연구가 유형분류에 국한되는 시각이 고정될 때 이로 인한 사회나 사상의 변화에 따라 문학작품 또한 양상이 변화하면서 내용도 변하게 됨을 간과한 점에서 사회적, 사상적 시대배경을 유추하는 본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II. 六歌系 연시조의 분류 및 특징

1. 六歌系 연시조의 분류

한시계열의 '六歌'는 송의 문천상(1236~1282)이 지은 〈六歌〉에서 비

6) 최재남, 「六歌의 受用과 傳承에 대한 考察」, 『관악어문연구』 12, 1987, p.346.

7) 임주탁, 전계서, pp.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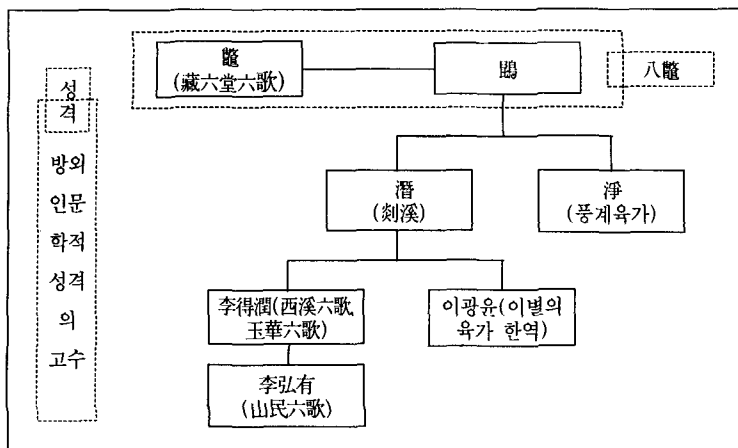
못되었으며 <六歌>는 우선 '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 고시로 볼 수 있고 6수 단위로 되어 있음에 따라 六歌라 한다. 초기 六歌의 태동은 송나라 문천상의 '六歌'에서 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각 수의 분량이 같지 않고, 각 노래의 끝에서 둘째 구에 '오호--가혜가--'이 있어 노래의 내용 및 성격을 통해 六歌로 구별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⁸⁾

<표 1> 文天祥의 六歌

구분	대상	형식	내용
一歌	妻	七言古時(11구)	正長
二歌	妹	七言古時(11구)	孔悲
三歌	女	七言古時(9구)	愈傷
四歌	子	七言古時(10구)	以呷
五歌	妾	七言古時(11구)	鬱紆
六歌	我	七言古時(12구)	勿復道

한편 조선시대 六歌를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李龔과 같은 高蹈拔俗의 방외인 문학적 성격을 띤 이별家乘 육가와 다음 자연은거와 더불어 세속적 성향을 띄고 있는 李滉, 權好文, 申墀 등에 의해 발전 성립되어진 육가이다. 특히 본래 방외인 문학에서 출현한 육가 형식은 내용 또한 그에 상응하여 방외인적 삶의 자세를 표출했던 바 이별의 <藏六堂六歌>를 비롯 이별가의 六歌는 高蹈拔俗의 방외인문학적 성격을 띠며 계승 발전을 하게 되는 데, 경주 이씨 가문의 대표적인 육가 작품의 계승 발전 양상을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8) 崔載南, 「六歌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관악어문연구』 제12집, 1987, p.321.에서 재인용.



2. 六歌系 연시조의 작품 특성

六歌系 연시조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연시조의 장르이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문학에서 공간과 시간은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학 속에서 공간을 작자가 지향하려고 하거나 표현하려고 하거나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는 주관의 대상이나 배경이 된다. 왜냐하면 작가의 주관은 공간이라도 객체 또는 구체적인 사물과 대상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조선조 당시 六歌系 연시조의 작자들이 나타내려 했던 것은 자연에서의 삶과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의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표현을 위해 관련 내용을 보면 六歌系 연시조에서 공간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六歌系 연시조는 “六歌” 라는 형식적인 특성과 함께 江湖에 은거한다는 공간적인 배경에서의 태도를 노래하는 내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六歌系 연시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연이라는 공간에서의 인간의 위치설정을 통하여 인간의 심정을 밝히는 데 주력하

였다.⁹⁾ 또한 六歌系 연시조는 극히 개인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특정한 공간 속에 위치한 자신의 심정과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개인의 “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

Ⅲ.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1. 六歌系 연시조의 사회·사상적 변이양상

六歌系 연시조는 조선 중기인 16세기부터 쓰여진 장르로서 그 시대만의 독특한 사회적·사상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15세기 조선 초기 학문으로 관학과, 정치적으로는 훈구파라 불리는 한양중심의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영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사림파는 아직 중앙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다 16세기 성종 에 이르러 김종직을 필두로 사림파가 대거 중앙에 진출하여 관학과, 훈구파와 경쟁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 네 번에 걸친 사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화를 거치면서 사림파가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 사림파들이 점차 정치적 실정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 16세기 말이다.

이러한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 와중에서 훈구파와 정치현실에서 직접 맞싸운 사림도 있고, 한편 지방, 특히 영남지방으로 돌아가 후일을 기약하거나 또는 산림에 은거하여 도학을 펴는 데 전념한 사람들도 있으니, 전자가 ‘出’의 생활양식을 기초로 한 사람이라면 후자는 ‘處’의 생활양상을 기초로 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처세관은 퇴계의 “출처론”으로

9) 金相珍,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 四時歌系, 五倫歌系, 六歌系 작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104.

잘 정리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사람들은 혼탁한 세상에 나아가 立身揚名하여 富貴榮華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청정한 사림에 은거하여 安貧樂道하는 삶을 누릴 것인가의 두 공간 사이에 고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심정을 올바르게 규정지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이와 같은 심정을 당시의 사회적, 사상적으로 집약한 노래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엿볼 수 있는 것 또한 六歌系 연시조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사상적 관점에서의 六歌系 연시조가 갖는 시대적·사상적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중기 이후 사람들의 현실비판의식에 대한 의식을 들 수 있다. 처의 생활양식은 무엇보다도 당대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당연히 六歌系 연시조의 창작에도 그러한 배경이 전제된다. 물론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江湖시조 성립의 중요한 배경이 됨은 물론이다.¹⁰⁾ 그렇기 때문에 六歌系 연시조를 江湖시조의 한 부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江湖시조 특히 六歌系 연시조 창작의 사회적·정치적 특징을 이루기 때문이다.

둘째, 유교적 출처관을 들 수 있다. 즉, 유교적 출처관의 연원은 맹자가 말한 “窮別獨善其身，達則兼善天下”라는 구절¹¹⁾로서 시세가窮할 때, 즉 정치가 혼란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물러나 자기 자신을 닦아 홀로 자신을 올바르게 하여 도를 지키고, 정치가 궁하지 않고 달하여 혼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천하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뜻을 편다는 뜻으로 전자

10) 신영명, 『16세기 江湖시조의 연구』 - 정치적,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p.15~18.

11) “盡心章句”, 『孟子』, 『大學 論語, 孟子, 中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4, p.711.

는 독선을 나타내고 후자는 겸선을 나타내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이 당시 독선의 상황에서 수기를 중시하는 사림은 정치현실의 문제를 단절과 회피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독선의 상황에서 치인을 중시하는 사림은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여기서 공간개념에 기초한 출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기지학의 사림을 처의 자세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도덕적 내면적인 도의 완성을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순수한 도의 추구를 대외에 천명하면서 혼탁한 정치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표출하였는데, 그것은 다분히 이상주의적인 정치개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이고 순수한 이념의 제시만으로는 정치현실이 개혁될 수 없으니 종종 조의 조광조의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기지학의 이상뿐만 아니라 치인지향의 실천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16세기 초는 사림이 최초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16세기 후반에는 사림들이 정계를 모두 장악했으나 자체분열의 시기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16세기는 사림에게 있어 혼란한 시대였다. 이 혼란상을 대처하는 관점은 다음의 두 방향이다. 영남사림은 수기지향의 이상주의적 특징을 갖고, 기호 또는 호남사림은 치인지향의 현실주의적 특징을 갖는다.¹²⁾ 이황의 출처관은 전자의 자세이고, 李珣의 출처관은 후자의 자세이다. 이 중에 수기지향의 이상주의적 자세가 처의 자세이고 치인지향의 현실주의적 자세가 출의 자세인데, 六歌系 연시조는 처의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출처관은 무엇보다 성리학 사상에 기반을 둔다. 성리학에

12) 金相珍, 진계서, p.108에서 “16세기 사림과 독선을 택하는 성행이 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사림에게 있어 16세기가 혼란된 시기이니 독선의 상황임은 명백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고 오히려 독선의 상황에서 수기지향의 관점과 치인지향의 관점이 분리되어 영남, 호남간의 정치, 학문, 사상적인 대립을 가졌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는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주기론과 주리론으로 나뉜다. 주리론에 따르면 理는 우주의 본체이며, 태극이고 일이며, 자연과 인간의 본연의 이치라고 한다. 그러므로 주리론에 있어 이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격물론에서도 주리론자들은 理가 물을 떠나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잡스러운 실체들과 분리된 순수한 이치 자체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도 절대가치의 존재를 상위에 두고 이 절대가치에 따르지 않는 사회현상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이다.

또한 理는 우주와 자연 특히 인간의 궁극의 이치이기 때문에 理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은거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처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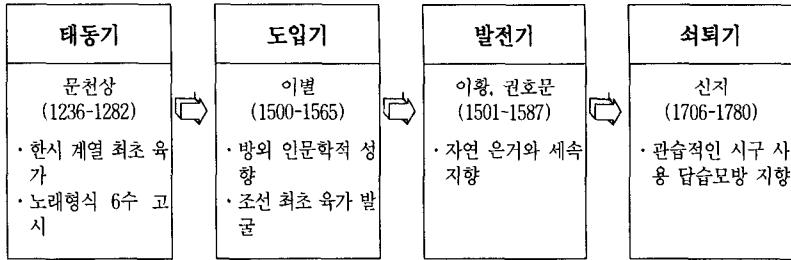
한편 주기론에 따르면 理는 항상 물 안에 내재되어 있고 격물은 心이 물 속에 있는 이를 밝혀서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완성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격물 자체 속에, 다시 말하면 현실의 사회 속에 추구해야 할 본체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기론자들에게 있어 현실은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추구하고 개혁하며 본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론자들은 출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16세기의 정치혼란, 특히 당쟁과 사회의 결과로 생긴 명철보신의 풍조와 귀거래사상이 六歌系 연시조의 형성에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이는江湖시조의 형성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六歌系 연시조를 앞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李鼈家에 전승되었던 六

歌系 작품과 여타 육가 작품들로 나누어 중국 송나라의 문천상의 태동에서부터 조선의 이별의 장유담 육가의 도입과 이황, 권호문의 발전기를 거쳐 신지의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변이되어 왔다. <그림 2>는 시대별 변이에 따른 대표적 작품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그 대표적 작가와 작품은 <표 2>와 같다.

<그림 2>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표 2> 六歌系 연시조의 작품별 변이내용

작가	작품명	시기	내용	특징
이별	장유담육가	1500-1565	화근을 일으키고 여섯가지 근원을 갖춘다는 뜻	어떤 외물에도 집착하지 않는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상태 삶의 가치 노래
이정	풍계육가	1561	고결한 삶의 자세를 노래	· 정확한 창작연대 미정 · 경주이씨가문의 가승기록 · 총6수
이홍유	산민육가	?	· 노부가 한가한 처지에서 회포를 풀지 못해 노래한 것 · 처음부터 끝까지 탈속의 한정을 지향	· 대체적으로 단조로움 · 여러곡의 아래에 이어붙여 대를 이어 승계될 노래로 가집형태를 띠
이황	도산십이곡	1501-1570	자신의 기대지평을 중시하는 지평선의 변환을 통하여 서로 표현	· 풍계육가에 가까움 · 이황의 도산십이곡으로 육가의 규범이 정립됨
권호문	한거십팔곡	1532-1587	정치현실을 강호자연에서의 이념적 순수성 천명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적 이상을 지향	· 총19수 · 1-2수: 현실과 자연사이 갈등 · 3-7수: 출처의 기묘선 송암의 갈등 노래 · 8-10수: 갈등해소와 처의 생활 노래

작가	작품명	시기	내용	특징
안서우	유원십이곡	1664-1735	· 작가자신의 울분을 달래며 당시의 정치상황을 비판한 시조 · 은거의 현실에 대한 좌절, 울분을 시로 표현	· 13연 구성 · 1연 서사 · 2-7연 전6곡의 언지 · 8-13연 후6곡의 언학모방
권구	병산육곡	1672-1749	· 구조적 반전을 통한 이상을 펼쳐보지 못하고 향촌에 칩거하여야 했던 갈등양상 표현	· 총6수 · 전형적 강호시가
신지	영언십이장	1706-1780	노래전체 강호생활 특히 반구정을 정점으로 풍광과 흥취를 주내용으로 함	· 총14수 · 별도의 제목이 없다 · 연시조 형식 · 관습적인 시구 사용으로 답습 모방의 쇠퇴기 육가모습

첫째, 이별의 〈藏六堂六歌〉는 1500년에서 1565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藏六堂六歌〉가 六歌系 연시조의 시초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李鼈家の 육가 작품들이 여타 연시조와 다른 점이 노장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즉, 서로가 서로를 잇는 주객합일을 추구하나 그 의미는 유교와 다르게 현상차원을 뛰어넘어 본질의 차원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외골수적으로 高蹈拔俗의 방외인문학적 성격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李鼈家の 육가는 여타 六歌系의 유교적 사교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둘째, 이정희의 〈풍계육가〉는 직계조상에 관한 것을 글로 정리한 것으로 먼저 도입부에 청풍을 들이기 위해 창문도 열어놓고 명월을 맞이 위해 잠도 자지 않는, 자연과의 친화를 첫 머리에 적고 1절 마지막 구절은 이 청풍과 명월을 버려두고 옛 사람은 어디로 떠났느냐고 반어로 되묻는 특징을 보여주고 제2절에서도 1절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리와 절연한 삶을 추구해서 시내 위에 띠집을 지어 서정적 자아의 삶의 공간과 관련해서 나타냈다.

특히 제4절에서 “늦도록 달치었소”라고 하며 자신만의 여유로운 마

음을 표현하였고 세간에서는 낚시대 하나밖에 없는 청빈을 자랑하고 있다.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무한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러기에 오히려 청빈을 강조한 탈속적인 삶이 엿보인다.

제5절은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군자의 인품을 적고, 제6절은 벼슬길은 폭풍과 모진 형벌이 잠복한 위험지대이니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로 끝을 맺고 있다.

〈풍계육가〉는 이별가의 〈육가〉의 정신이 잘 나타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藏六堂六歌〉와 천연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황이 〈藏六堂六歌〉를 겨냥해서 비판했던 ‘완세불공’의 뜻이 다소 완화되어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홍유의 〈山民六歌〉는 노부가 한가롭게 한가한 처지에서 회포를 풀지 못해 노래한 것으로 제1절 첫 머리부터 탈속의 한정을 지향하며 6편이 모두 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단조로워진 감이 드는데, 계보는 〈도산십이곡〉보다는 〈풍계육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정자아의 고독감이 훨씬 짙게 그려지는데 거기에는 세상에 대한 그의 불만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제3절에서는 거문고 연주에 몰입한 경지를 통해 고독감을 표출한 시상이 다른 것과는 색다르다.

넷째, 퇴계의 〈陶山十二曲〉은 六歌系 연시조의 전범으로 주리론에 입각하여 물을 떠나 있는 理를 긍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을 떠나 도를 궁구하며 그 은거를 통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독선의 상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이다. 또한 전6곡과 후6곡의 구성도 이후에 전형적으로 답습된다.

다섯째, 권호문의 〈閑居十八曲〉는 松巖의 사상을 퇴계의 〈陶山十二曲〉처럼 정치현실을 江湖자연에서의 이념적 순수성 천명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보수적 이상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 16세기 중반은 사림의 자체 분열로 인하여 정치상황이 악화된

시기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광범위한 정계진출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松巖 또한 그러한 정치현실에 불만을 느껴 정치참여를 거부하고 江湖자연에서의 ‘처’의 삶을 살면서 현실참여와 江湖자연의 삶 사이의 출·처간의 갈등을 노래한 것이다.

〈閑居十八曲〉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연에서 7연까지는 출처의 기로에 선 松巖의 갈등을 노래하고 8수에서 19수는 갈등의 해소와 처의 생활을 노래하였다.

내용에 있어 1수와 2수에서는 출(현실)과 처(자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때의 출처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적 자아는 혼돈의 상태를 말하고 또한 이때의 공간은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3수에서 시적 자아는 “입천”으로 상징되는 자연을 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직 갈등은 끝나지 않고 4연에서 3연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시적 자아를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4수 종장의 “기로”로서 이러한 갈등은 5연에서도 계속된다. “행도”란 도를 행하는 것으로 “은처”와 대비하여 본다면 현실정치에 참여하여 행위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아직도 갈등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5수의 종장은 이러한 갈등을 끝내는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6수와 7수에서도 “뜻”은 江湖자연에의 은거의 뜻이며 “일”은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결국 처의 생활, 江湖자연에의 은거를 결정함으로써 처의 생활의 결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있던 갈등이 또 다른 깨달음에 의해 해소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처의 생활이 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도를 지키는 것이며 ‘명철군자’의 생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8수에서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江湖자연에서의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이러한 은거가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로 천일합일을 목표로

로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안서우의 〈楡院十二曲〉은 1연 서사의 존재에서 특징을 갖는다. 서사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六歌系 연시조가 전범인 〈陶山十二曲〉의 구성상의 긴밀성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상의 긴밀성 약화는 사상의 변화에서도 유래한다. 18세기적인 실사구시의 학풍의 영향은 시조 내에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이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시의 표면적인 갈등해결 구조와는 다르게 그 이면에 끊임없이 표현된 시적 자아의 울분의 표현은 실존하는 인물로서의 개인의 심정표현에 크게 접근하고 있어 매우 근대적으로 보인다.

일곱째, 권구의 〈屏山六曲〉은 그 구조에서 이전의 六歌系 작품들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바로 안정, 갈등, 평정의 순서에 따른 구조인데 이는 순환이 아니라 평정 내에 내포된 갈등을 극복해 낸 새로운 평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변증법적이고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 자체가 아름다운, 아무 갈등 없는, 그리고 안정된 공간이지만, 현실은 너무나 대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자체가 슬퍼 보이고 모순되어 보인다는 설정 자체는 너무나 심미적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신지의 〈永言十二章〉은 六歌系 작품의 마지막 작품으로 다른 육가에서 보이는 완세적 발상이 보이고 또 수기의 측면도 보이나 이미 환로에 나가기 어려운 18세기 재지사족으로서 선인들의 시구를 답습하며 자족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타작품은 李龔家에서 가승되고 있던 작품들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연에 은거한 도의 실천, 현실도피 등의 탈속적인 성격과 함께 세속에 대한 미련, 갈등이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즉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성향적 특징을 비교하면 李龔家에서는 독단적이며 현실을 도외시하는 성향이 전승되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을 고수하는 것과는 달리 후기 육가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修己, 人事에 대한 미련, 갈등, 후회등의 성향

이 나타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결국은 평안과 안정을 찾아가는 처사적 문학의 변이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앞의 육가들과 차이를 갖는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선행 논문들의 연시조 내용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조선조 초기부터 후기까지 시간흐름의 기준에 맞추어 시대별, 사회 변화에 따른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을 연구하였다. 이 같은 연구방법은 그간 문학작품 내용만이 연구의 중심이 되어온 시각에서 탈피하여 문학 연구에서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시대적, 사회적 변화 등과 더불어 문학장르, 특히 六歌系 연시조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골격은 연시조의 태동 15세기 조선조 성립을 초기로, 양란을 전후로 하는 16·17세기를 중기로, 그리고 18세기 무렵을 후기로 변이양상을 다루었는데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六歌系 연시조는 형식적인 특성과 함께 江湖에 은거하는 태도를 노래한다는 내용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六歌系 시조는 '인간의 성정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고 이는 곧 '공간과 삶' 속의 인간의 성정을 노래하는 데 주력한 六歌系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심 과제이다. 이러한 六歌系의 변이양상을 보면,

첫째, 조선조 초기의 대표적인 六歌系 작품인 「藏六堂六歌」가 이후의 연시조와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장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이다. 즉, 서로가 서로를 잇는 주객합일을 추구하면서도 그 의미는 유교와 달리 현상차원을 뛰어넘어 본질의 차원에서 관념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시 말하면, 李龍의 『藏六堂六歌』는 현실의 암담한 처지에 대한 반동으로 현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고 초월의 대상으로 보아 제물론적 자연인식을 통해 삶의 가치를 노래한 점에 특색을 갖는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도 없고 다만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이 시기의 六歌系 연시조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둘째, 조선중기의 『陶山十二曲』은 六歌系 연시조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리론에 입각하여 물을 떠나 있는 理를 긍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을 떠나 도를 궁구하며 그 은거를 통하여 독선의 상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작품으로 전6곡과 후6곡의 구성도 이후에 답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작품인 『屏山六曲』의 구조는 이전의 六歌系 작품들과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안정, 갈등, 평정의 순서에 따른 구조인데, 이는 순환이 아니라, 평정 내에 내포된 갈등을 극복해 낸 새로운 평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변증법적이고 근대적이다. 또 자연 자체가 아름답고, 아무 갈등이 없는 안정된 공간이지만 현실은 너무나 대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 자체가 슬퍼 보이고 모순되어 보인다는 설정 자체는 심미적이라는 점에서 초기·중기와 대조적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이 六歌系 연시조는 현실의 암담함으로 인해 현실자체를 도외시하는 현실의 도피나 갈등의 초기성향에서 새로운 평정을 찾는 현실 극복의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1. 資料
『퇴계집』 권 43, 〈陶山十二曲跋〉

2. 單行本

- 고정옥, 『國文學의 形態』, 우리어문학회 編, 『國文學概論』, 서울: 一成堂書店, 1949.
- 김홍규, 『江湖歌道와 정치현실』, 『古典詩歌論』, 서울: 새문사, 1984.
- 박성의, 『한국고전문학론고』, 서울: 예그린출판사, 1978.
- 박성의, 『한국문학배경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1978.
- 박을수, 『韓國時調大事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 , 『한국시조문학전사』, 서울: 성문각, 1978.
- 심재완, 『교본력대시조전집』, 서울: 세종문화사, 1972.
-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서울: 세종문화사, 1972.
- 여기현, 『江湖인식의 한 양상』, 서울: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 1988.
-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서울: 서문당, 1973.
- 이태극, 『시조의 사적 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197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서울: 지식산업사, 1984.
- 진동혁, 『고시조문학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 II』 조선전기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 최재남,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1997.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6.

3. 研究 論文 및 刊行物

-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명희, 「권호문론」, 『속 고시조 작가론』, 한국시조학회, 1990
- 김상진,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박규홍, 「조선전기 聯詩調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신영명, 「16세기 江湖시조의 연구」 - 정치적, 철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연구」,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조성래, 「聯詩調의 構造에 관한 研究」,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최재남, 「六歌의 수용과 전승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관악어문연구』 제12집, 1987.